

VOL. 42 | 2023 SUMMER

# 예담원



팔리세이즈 팍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오클랜드

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 예담원 YEA DALM WEON

발행인 | 김도완 목사

총 관 | 노근래 목사

편 집 | 김유미 집사

디자인 | 김재영 집사

발행일 | 2023년 9월 2일

제 작 | 뉴저지장로교회 문서편집부

## 예담원 42호를 발간하며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교회 집사님이셨지요. 머리를 예쁘게 잘 만져 주셨습니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집사님은 예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엄마는 예수님 안 믿어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셨지요. 이어서 집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 먹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한 해 한 해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며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예담원지에는 선교에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담원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들로 풍성해질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 CONTENTS

발간사 01

## 김도완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만찬

제자를 삼는 교회 [김도완 담임목사] 04

## 예담원 42호 특별 기획

###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 조사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 뉴저지장로교회 [문서선교부] 10

### 교육부 교사 인터뷰

특수아동 교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 [편집자: 김유미 집사] 18

### 선교사 소개

한 사람 [허지영 사모] 26

### 선교 관련 책 소개

책으로 만나는 선교 32

## 선교 및 사역

### 해외 단기 선교

엘사바도르 선교 후기 [박순자 권사] 36

2023 협력 선교사 소개 39

### 교육부 사역

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김미미 집사] 40

## 선교 및 사역

### VBS

Coming to this year's VBS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Joyce Roh] 44

GOD's love to shine in VBS  
[Heimin Yoo] 45

### ASK Summer School

Ask Summer School Journey  
[Lighbert Cho] 46

For the next dreamers [김준섭 성도] 48

## 양육 프로그램 후기

### 일대일 제자 양육

일대일 동반자반을 마치며 [강할리 집사] 51

일대일 양육자반을 마치며 [송희선 집사] 54

### 심리 상담 북클럽

생각이 바뀌는 순간을 마치며 [이연희 집사] 56

## 성도의 삶 나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석미옥 권사] 58

## 2023년 사진 모음

60

## 편집 후기

42호, 그 사이를 잇는 예닮원을 떠나며  
[편집자 : 김재영 집사] 64

2023년 8월 23일 주일설교 일대일 수료식

# 제자를 삼는 교회

- 마 28:16-20 -



김도완 담임목사

## 1. 미얀마 세계로선교대학

지난 6월 초에 저는 이은상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세계로선교대학 헌당예배에 꼭 좀 참석해 주기를 요청해 오셨는데 당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에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와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26시간이 걸린 끝에 미얀마 수도 양곤에 도착해서 신학교와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헌당 예배 참석을 요청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뉴저지장로교회가 이 신학교 건물 건축을 돕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989년 교수였던 이 선교사님 내외는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다가 후에 오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미얀마 선교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혈액암으로 별세한 후 홀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 양곤에 세계로신학교를 세웠는데 건물이 없어 이곳저곳 세를 들어 다녔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 기도 모임의 후원을 받아 드디어 학교 건물 공사를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돈도 다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에서 작년 초 우리 교회 부흥회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부흥회 후, 당회원들

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50주년 기념 사역 펀드 중 일부로 건축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원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도 후원이 들어오면서 1년 만에 마침내 올 초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 재개에 큰 힘이 되어주었기에 헌당 예배에 꼭 좀 참석해주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도 그간 교우들이 이 선교사님을 지정하여 드린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였습니다. 15년이 다 되어가는 선교 사역에 적지 않은 후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교사님은 차 없이 택시나 제자들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숙소도 허름한 모텔 방 하나를 장기 임대하여 살고 계셨습니다. 신학교 건물도 이제야 완공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첫째가는 사명은 먼저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자원을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건축도 미루고 차도 없이 지금까지 120여 명의 신실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졸업시켜 미얀마 오지 곳곳으로 파송해 왔습니다.

## 2. 일꾼을 세우신 예수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이은상 선교사님의 사역 철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철학이요, 선교와 목회의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열두 명의 일꾼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지상 대명령을 통해 그들을 보내시며 조직을 만들어라,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즉 신실한 일꾼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을

사지 않고 사람을 전도하여 양육하여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모여 전도하다 보니 교회가 탄생하였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려고 조직이 이어서 생겼고 집에서 모이던 이들이 규모가 더 커진 한참 후에야 전용 건물 즉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교회당이 없어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직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딤후 2: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은 모든 시대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 3. 일꾼을 세우는 선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미국의 한인교회가 주력하고 라틴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선교지를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 분포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 가톨릭, 40%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 토착종교를 모두 포함하면 20% 정도가 됩니다. 미국도 개신교 비율이 최근 40% 정도로 떨어졌고 한국은 20% 정도입니다. 이 지역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미국과 비슷합니다.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성비가 무척 떨어집니다. 선교사 한 가정의 현지에서 사는데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 산업화된 서구 사회와 비슷하게 듭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의 물가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렇게 정착한 선교사가 현지인 교회를 세워서 섬기려



면 언어와 문화와 생활 수준의 엄청난 벽을 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큰 목회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지인 사역자는 선진국 선교사의 적게는 10분의 1의 생활비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생활수준의 벽이 없이 즉각 성도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지인 교단에 의해 이미 개신교 인구가 40%를 넘어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전체 교회를 놓고 본다면 선교 자원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슬람 국가나 오지에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과 남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서구 선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더라도 그 신학교의 수준이 무척 낮습니다. 신학교는 수도와 일부 도시 인근에만 있기에 많은 지방 사역자가 대부분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따라다니거나 교회에서 좀 열심히 섬기던 이들이 어느 날 자신을 파스트르라고 부르며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과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 남미 가톨릭처럼 토속 신앙과 혼합되어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방식의 목회를 합니다. 이들 교회가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은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선교사가 비싼 비용을 들여 이 지역에서 땅 사고 건물 지어 교회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곳을 돌아서 나오면 다음 골목에서 현지인 사역자가 섬기는 몇 백 명 교회, 몇 천 명 교회를 만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같은 자원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 이익이 높다는 뜻입니다.

#### 4. 성경적 선교원리

이는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교회 파송 공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

를 중심으로 로마제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들 중에서 리더를 세우고 즉시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성장한 교회가 주변 시골 지역을 전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롬 15:20) 또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미 전도된 지역에는 가지 않고 미전도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전략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필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일꾼을 세워 지도력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사정에 밝은 리더를 세우고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그 지역을 신속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 이들이 신약성서의 주인공들인 디모데나 디도, 빌레몬,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등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나 카이로스 훈련 등에 참여하시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 5.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 전략은 이미 세워진 지역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지상대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선교적 양육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선교적 양육은 성경적 선교의 관점을 얻어 섬김과 선교의 장으로 나가도록 돕

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재 422명이 동반자반을, 226명이 양육자반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겼습니다.

동반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양육자반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양육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양육자가 되거나 사역의 장으로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동반자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십시오. ‘친구야, 16주 동안 커피 사줄 테니 나랑 매주 한 번씩만 만나자,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널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 우리 교회 양육자 중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시댁 식구까지 양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복된 진리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찌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에게도 전도이지만 안에 있는 이에게도 여전히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몸 담고 있어도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반을 마친 이들은 더욱 성장하기 위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적 양육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교회는 왜 합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참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양육 받아 성장하고 동시에 양육하는 이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 자라고 또한 일꾼을 세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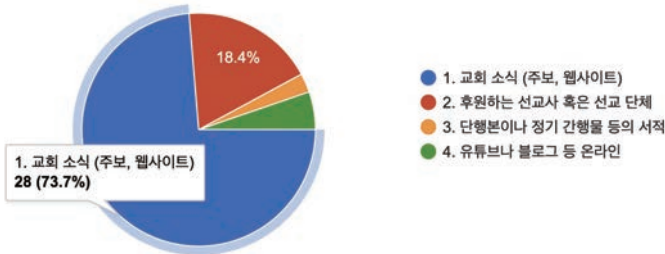
#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 뉴저지장로교회

문서선교부

작년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을 보낸 뉴저지장로교회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름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맞게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번 표어가 된 것이 아닐는지요. “COVID - 19”가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 질병이 아님이 선포됨과 동시에 저희에게도 다시금 back to normal의 시간이 찾아왔고, back to Jerusalem의 꿈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예답원지 42호의 특별 기획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삶”에 대해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한 설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나,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니, 내용을 나누며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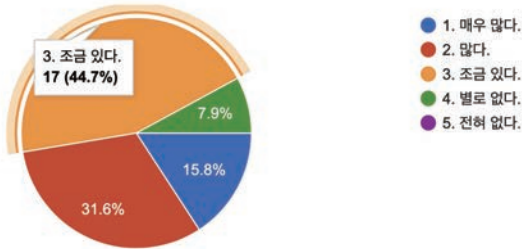
## 1. 선교와 관련된 정보나 이야기를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접하시나요?

첫 질문에 “선교”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교회 소식인 (주보, 교회 웹사이트)의 채널을 통해서가 73.7%로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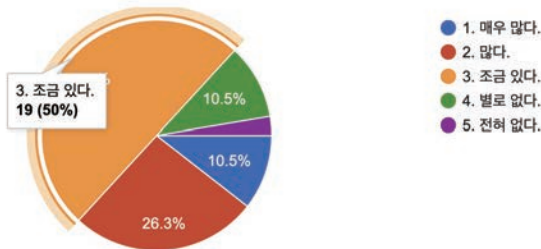


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상외로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온라인을 통한 채널은 5.3%로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 2. 국내 선교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 3.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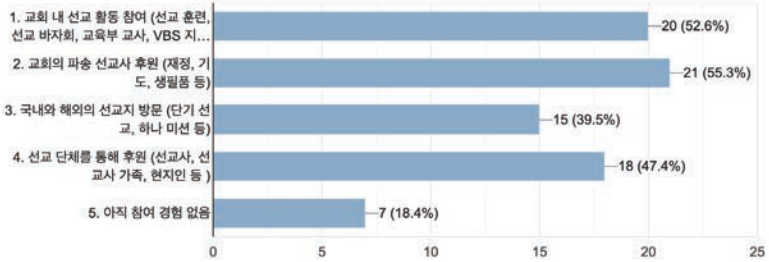


선교는 크게 국내, 해외 선교로 나눌 수 있어 뉴저지장로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선교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있다"에 44.7%, "많다"에 31.6%, "매우 많다"에 1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있다"에 50%, "많다"에 26.3%, "매우 많다"에 10.5%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선교에 대하여 92.1%, 해외 선교에 대하여 86.8%로, 거의 모든 성도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4.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의 선교에 참여해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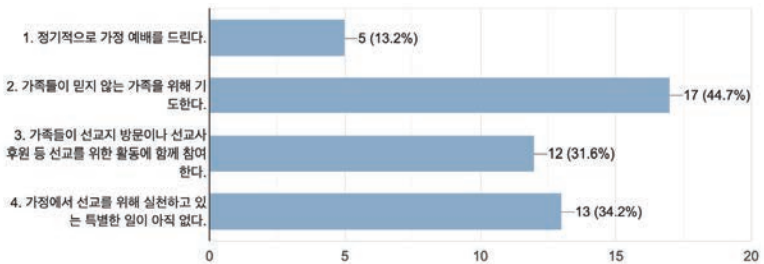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교회의 파송 선교사 후원(재정, 기도, 생필품 등)으로 가장 많은 55.3%, 그다음은 교회 내 선교 활동 참여 (선교훈련, 선교 바자회, 교육부 교사, VBS 지원 등) 으로 52.6%로 복수 응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앞서 나왔던 조사의 결과에 거의 모든 성도님이 관심이 있다고 나왔지만, 참여의 경험이 없는 성도님의 수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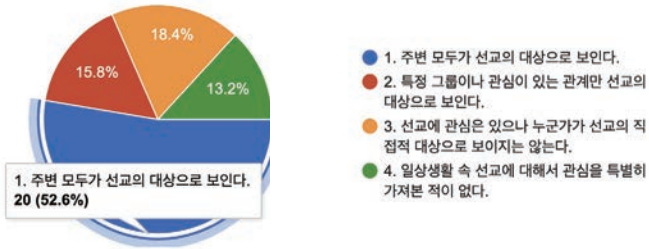
### 5. 가정에서 선교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복수 응답 가능)

선교의 의미를 더 넓혀 다른 인종, 문화, 언어를 가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도 복수 응답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나,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후원 등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여러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6. 일상생활 속 선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아닌 사회의 일상생활 속 선교에 대한 관심 중 주변 모두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는 비율이 52.6%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정 그룹이 관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관심은 있지만, 딱히 직접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비율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 7-1.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생활에서 선교(전도) 기회를 얼마나 만들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선교 기회는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이 질문의 응답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 가끔 모임을 직접 만들거나, 참여하는 비율이 23.7%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7-2.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생활에서 선교(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나왔지만, 23.7%의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대답은 “중보기도”가 가장 많은 선교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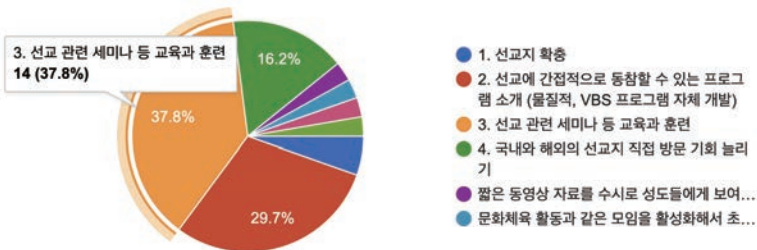
- 기도한다.
- 자주 만나 삶을 나눈다.
- 중보기도를 한다.
- 부끄럽지만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선교라고 생각하며 교육에 적극 참여, 주변인들에게 동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가끔 권고한다.
- 선물이나 음식을 전해준다.
- 나의 언행·행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 식사기도
- 찬양 부르기
- 지인을 만나면 교회에서 좋은 점, 필요한 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 교회 선교사역에 함께 하자고 권한다.
- 말씀 카드를 공유하고 있음
- 주변에 있는 분들께 전도 멘트를 던진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기
- 카톡으로 공유한다.
- 서로 가끔은 기도하고 은혜를 공유한다.
- 먼저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한다.
-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함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함)
- 이웃들, 특히 노숙인들 도와줌
- Social media를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며 공유한다.
- 선교 교육 권면
- 살며시 도와주며 속으로 기도하고 가끔 카드도 쓴다.
- 성경 말씀 공유, 전보다는 좀 더 친절히 대하고, 말도 자주 걸어서 대화를 시도한다.



- 말씀 공유, 전화 통화, 만남, 선교 대상인 중보기도
- 별로 기회가 없다. 교회의 표어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 지속적인 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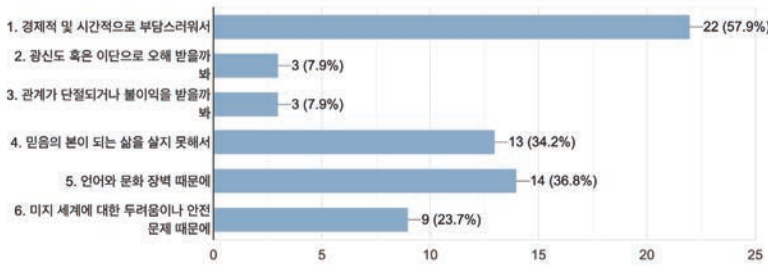
### 8. 선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도록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짧은 설문 조사였지만, 확연히 드러난 결론으로 선교에 다가간다면, 성도들이 가장 많은 선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채널인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 관련 세미나 등 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37.8%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선교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 9.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선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부담스럽다” 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57.9%를 차지 했으며, 그다음 언어와 문화의 장벽,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또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10.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이나 기타 선교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제안이나 기타 선교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교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선교가 타지,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정의 내려지기 때문에 더 힘들고 멀리 있는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의 이끄심대로가 우선 바탕이 되어 기도에 힘써야 할 듯합니다.
- 국내 전도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까운 곳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부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멀리 해외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다 없어진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성경적 지식이 많이 필요
- 가능하면 많은 성도들의 선교 참여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의 기반이 될 것 입니다.
-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세미나 혹은 집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는다.
-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에 선교지가 있으신지요?
- 모든 교인이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하듯 선교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넣어 교육해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 구역별로 크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선교지 혹은 선교사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책으로 배우지만 말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주체가 되어 선교에 열심을 품어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나 국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 사랑을 나누는 작은 일부터 선교라 생각하고 멀리 가는 것 말고도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교회가 만들면 좋겠다.
- 퍼스펙티브나 선교적 훈련과 부흥회를 통해 먼저 영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 순회 선교회 (복음학교, 복음 세미나) 김용의 선교사님 통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을 알았고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학교와 김용의 선교사님 초청 세미나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 특수아동 교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

- 한지희 성도 인터뷰 -

편집자 : 김유미 집사

지난 6월 뉴저지장로교회의 유초등부를 위한 2023년 여름성경학교가 올해에는 특별히 2박3일 여름수련회처럼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5학년의 아이들이 처음 집을 떠나 친구, 가족, 지인의 집에서 sleepover의 가벼운 개념이 아닌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2박 3일의 여정이 과연 무사히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의문으로 저는 결국 두 딸 아이를 보내는 저는 교사로 지원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염려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클랜드 캠퍼스에서만 수년간 예배를 드렸던 저 자신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같은 교회지만 전혀 존재를 알 수 없었던 팻팍 캠퍼스 교육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밤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던 중 특별히 팻팍 캠퍼스 유초등부 선생님을 맡고 계신 한지희 성도님의 그동안에 삶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이 이번 42호 예담원의 주제인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에 맞을 거로 생각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저도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로서 한지희 성도님의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수아동 교육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신 집사님의 바쁜 일상과 육아로 직접 대

면할 수 없어 메시지를 통해 집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1.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장로교회 팸팍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지희입니다.

뉴저지장로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출석하다가 아이가 크면서 주일 학교가 있는 곳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을 보고 조사해 보니 실제로 교회학교 존재 여부를 재미 고신 총회에서 ([www.kosinusa.org](http://www.kosinusa.org))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 한인 교회는 영유아 70%, 초등부 53%, 중고등부 69%로 집계되며,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일세 교회로서의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2. 특수아동 교육을 공부하게 되신 이유와 교육자로서 얼마나 활동하셨는지요?

저의 원래 전공은 유아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머니의 권유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모의수업이나 실습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유아특수교육과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 3. 특수아동 교육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수교사로 근무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중 제가 처음 입사하면서 기존 유치원에 통합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합교육은 기존 반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반대가 있었고 첫 학부모 OT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사와 모든 학부모님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한 부모님께서 유난히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와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장점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처음에는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의하시던 부모님의 자녀가 통합교육에 참여하던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함께 즐기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이전의 일들을 사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그 부모님께서도 누구보다도 통합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어른들은 겪어보기도 전에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피해 또는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보다 더 많이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 아이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느끼게 되는 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통합 교육뿐 아니라 통합 예매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나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뉴스 앤 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교회에는 더 세분화 된 (발달장애부, 농아부, 지체장애인부) 부서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캠프 및 통합 교육 세미나

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미국은 특수 교육의 선진국이지만, 한인 교회에서는 통합교육 및 예배 제도가 아주 부족해 보인다 느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도 예배 때 말씀과 찬양을 수화로 번역하여 화면에 띄워주셨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كل랜드와 팰팩 두 곳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장로교회의 장점을 살려, 이런 제도에 다시 한번 앞서서 보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 4. 한국 특수아동 교육과 미국 특수아동 교육의 차이점은?

미국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와서 느낀 점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한국보다 아주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등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특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의 편견에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미국이 잘 되어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경증 장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른들의 언행 심사로 표현되는 편견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아이들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비판 없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답변을 통해 저도 얼마 전 저의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같은 반에 ADHD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 친구가 ADHD인 줄 몰랐고, 다른 친구들과 행동이 달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그 반의 모든 학생과 아픈 학생과의 어려움이 커



저 나중엔 큰 이슈까지 불러온 사례였습니다. 나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의 올바른 교육과 관계 형성이 부족해서 낳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특히 한미특수교육센터 (<https://kasecca.org/mission/>) 의 조사에 따르면 심리적 불안감을 넘어 ADHD나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를 갖는 아이들이 매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이에 따른 바른 이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한국 교육 방송인 EBS에서 “딩동댕 유치원”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유아 캐릭터가 등장하는 최초 한국 유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7년 전인 2016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인 “PBS\_SESAMME STREET”에서는 이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캐릭터가 일반 아이들과 다른 점보다는 공통된 점을 더 부각해 생활하는 일반적인 생활 모습의 통합교육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 5. 특수아동 교육과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시작한 지라 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교사로 근무할 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밀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6. 실제로 특수아동 교육을 통해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기독교 대학의 부설 유치원에서 근무하였고, 대학 기관의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유치원에는 주변 지역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매주 예배하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마음에는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 가족이 전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가정 중 하나는 4남매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거친 언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 나오시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거짓말처럼 행동과 말투도 많이 바뀌고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대외교육부 사역을 통하여서도 믿지 않는 가정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특수 교육이 필요한 가정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선교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지희 성도님 같은 분들이 곳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네요.



7. 특수아동 혹은 장애우를 위한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인종, 언어, 문화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식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지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아동이나 가정들을 수시로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8.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 처럼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행동과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안녕? 잘지냈어? 사랑하고 축복해!" 라는 말과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단 몇주라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교사들을 많이 양육해 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지희 성도님의 마지막 대답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서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일대일 제자 양육 마지막 과에는 평신도는 목회자의 사역 대상이 아니라 평신도 자신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할은 “사람을 낚는 어부”,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을 비추는 등불”, “추수하는 일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에 더 간절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혼과 가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며 도약적인 선교의 삶, 본인이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 내시고 있는 한지희 성도님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뉴저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도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한 사람

허지영 사모

2022년 가을부터 4학기 동안 우리 교회 부속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지난 봄학기에 처음 역사 문화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도 함께 가르쳐 온 우리 교회 한국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배워오면서 가장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반이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 14주간의 수업 내용을 구상하는데 막막하다. 타교회 한국학교에서 만들어 온 역사 문화 교육과정도 들여다보고 재외동포재단이며 미 동북부 한글학교협의회 자료들을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우리만의 과정을 만들어 보자.

교회에서 하는 한국학교. 기독교인 코리안 아메리칸인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픈 정체성 그에 걸맞은 과정.....

우선 편하게 각 시대별 자료 중 현재 부각된 된 내용(최초 금속활자본 직지, 한식 문화)과 절기(삼일절, 식목일, 부활절 등)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대별 인물 위주로 과정을 잡기로 했다.

마음은 앞서는데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겸 남편 서재의 책들을 뒤적거린다. 그러다 한구석에서 '양화진 선교사 열전'을 찾아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살다가 죽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사람들과 그 가족들. 이분들의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어야겠다는 마음이 확 올라왔다. 뭔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이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이름들 속에 막연히 가장 대표적 인 두 사람이 선정되었다. 언더우드, 헐버트...... 자료가 가장 많을 듯해 선택한 부분도 사실 맞다. 내게 언더우드는 새문안 교회를 시작한, 연세 대를 만든 유명한 선교사님 정도의 얇은 지식뿐이었는데......

교사로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 찾아볼 수밖에 새문안교회 홈페이지와 각종 신문 기사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 방송과 각종 방송사에서 만든 영상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정말 놀랐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분의 삶의 자취가 있었다. 그는 1880년 뉴저지 노스버겐 뉴더햄에서 이민자로 살았고 NYU와 뉴브런스윅의 신학교를 다녔으며 뉴저지 애틀란틱 시티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가봤던 곳 어딘가를 140여 년 전쯤에 살았던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엄마가, 동생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다. 잉크 공장을 하던 아버지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재산을 다 잃고 신대륙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가난, 이민자로 미국으로 온 언더우드 가족,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때를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실하게 다시 기반을 다져나갔다. 개혁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을 하고 잉크 공장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새로운 나라에 뿌리내리게 했다. 언더우드는 뉴더햄의 그르브 교회 목사님인 메이븐(Marben)박사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가난한 형편에 뉴저지에서 뉴욕의 학교까지 7마일을 걸어 다니고 밤낮없이 일과 공부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던 열정이 넘치는 청년 언더우드. 그의 목표는 성공도 명성도 학위도 아니었다.

소년 시절부터 품은 비전인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 언더우드는 힌디어를 배우고 의학까지 배우며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국으로 부르셨다.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선교사 지원 학생들의 모임에 참여한 언더우드는 한 회원이었던 올트만스(Altman)의 한국에 관한 논문 발표를 듣게 된다.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은둔국이던 한국이 문호를 개방했고

그 나라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1,200~1,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미국 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라는 그 한 사람의 발표를 언더우드는 내내 마음에 두었다. 자신은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하기에 다른 신학생들에게 한국으로 선교를 가라고 권면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느냐?” 1년간의 고민과 기도 끝에 그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소속된 개혁교회 본부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 청원을 내지만 2차례 거절 당한다. 그리고 다시 미국 북 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도 2차례 청원서를 내지만 역시 자금이 없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다.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후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한국 선교의 길이 막힌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거나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하고 자리를 찾던 중 뉴욕의 개혁교회 목사로 청빙 받을 기회를 얻는다. 1년에 \$1500 (당시 보통 연봉 \$400~\$500) 좋은 조건의 담임목사직. 그 교회의 청빙 수락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던 언더우드를 다시 하나님께서 두번째 부르신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이 나고 목소리가 떨려왔다. 이때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나는..... . 지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편지를 도로 집어넣고 한국에 가기로 다시 결심한 후 센터 스트리트 23가 북 장로교회 해외선교부로 방향을 돌렸다.(pivot!!)

그 사이 북 장로교 해외선교부에는 총무가 바뀌어 있었고 그는 훗날 한국 선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엘린우드 박사였다. 그 새 총무 앞에는 브루클린의 평신도 맥 윌리엄스가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보낸 \$1,250의 현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시 일반인 3년 치의 연봉 정도의 금액) 1884년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는 그해 여름 한국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았고 고향인 영국에 다니러 간다. 그곳에서 친척 중 목사인 에드워드 존스를 통해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18년 전)을 듣게 된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는데 결혼해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국 생활로 고생하던 임신한 아내가 죽고 홀로

남았다. 큰 슬픔에 빠져 있던 그는 조선의 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아 죽은 사건을 전해 듣게 된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다. 제너럴셔먼호가 무역하러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3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함께 탑승하는데 안타깝게도 제너럴셔먼호의 선장, 군인들과 조선 군인과의 대치 상황이 되어 전투가 있었고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대동강 변에서 순교 당하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그때 뿌려진 성경들은 정식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 조선 북쪽 지역에 퍼진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갈등하지 않았을까? 나도 것처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언더우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1884년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향하고 나가사키에 도착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며 한국어를 배우며 선교를 준비한다.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다. 그의 손에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서는 조선의 관료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수정이라는 한국인에 의해 번역된 마가복음전서였다.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의 전도와 모임의 초석이 된 인물이다. 이수정은 얼마 후 조선으로 돌아가지만 이후 그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순교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실정을 파악한다. 그리고 조선 북쪽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다. 신희여행을 포함한 3번의 선교 여행에서 언더우드는 중국의 선교사를 통해 혹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조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조선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시작한다. 이후 조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아들을 데려와 돌보고 가르치기 시작한 언더우드 학당은 이후 경신 중고등학교로, 경신학교의 중등 학부인 연희전문학교는 세브란스와 합하여 연세대학교로 발전한다. 교육뿐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한글 성경

(1911)을 번역하고 영한 사전, 그리스도신문 등 각종 출판사역(대한국독교서회)을 감당한다. YMCA를 조직하고 청년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기독교 초기의 문서와 교육 사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감당한다.

고종황제를 비롯해 일제의 압제와 참담한 국권 침탈의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조선의 사람들을 교회와 학교를 통해 섬기는 등 맡게 된 모든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간다.

한국에 있는 동안 서신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선교 보고 및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안식년을 맞은 1891년~1893년 동안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 등을 오가며 한국에 대한 강연 기고, 선교 지원 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실정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의 강연과 설교를 들은 많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경신학교의 중등 학부(연희전문학교)를 일제에 인가받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일제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과로한 나머지 병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치료받으러 떠난 미국의 아틀란틱 시티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임종 하루 전까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의 바람은 뒤늦게나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이장됨으로 이루어졌다. 언더우드는 청년기 이후 30년간 한국의 선교사로 살았고 언더우드의 후손은 4대에 걸쳐 연세대와 한국에서 봉사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사자)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추종자)  
Friend of Korea (한국의 친구)”**

언더우드의 비문에 쓰인 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며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

그의 순종이 지금의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세계 열방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다시 선 자리를 돌아보며 기도한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가?

언더우드? 그의 아내, 선교사였던 릴리어스 호턴? 그를 키운 아버지 존 언더우드? 그의 인생과 신앙의 스승 메이븐 목사?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호소한 울트만스? 선교회 총무 엘린우드? 평신도 한국 선교 헌금 봉헌자 맥 윌리엄스? 복음의 불모지의 성경 번역자 이수정? 복음을 위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2:1-3 -



# 책으로 만나는 선교

## 문화와 선교

손창남 저 | 조이선교회

영광스러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의사소통 원리와 타문화 선교의 실제



[문화와 선교]는 저자인 손창남 선교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강의한 주제를 정리한 책으로, ‘문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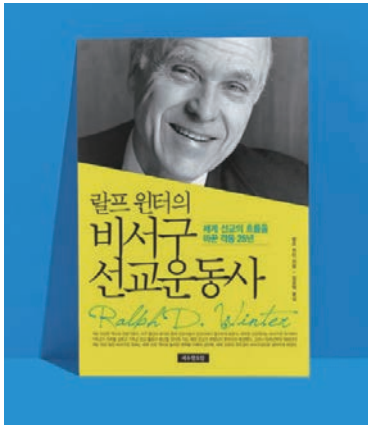
‘선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단일 문화 안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 점차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타문화를 배척하는 대신, 타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현지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는 즐거움을 누리자.

##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

세계 선교 흐름을 바꾼 격동 25년

랄프 윈터 저 | 예수전도단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는 세계 선교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 내고 예측하는 랄프 윈터 박사의 예언자적 면모가 고스란히 담긴 책



이 책은 제국주의의 쇠퇴와 미션구 국가들의 선진화 시기인 1945년부터 1969년까지의 25년을 다룬다.

현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흐름이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이 다루는 격동 25년을 통해 우리는 미래 선교의 변화를 헤아리고 가능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백 년을 훌쩍 넘긴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에게 세계 선교의 남은 과제를 넘겨주고 쇠퇴의 길을 걸을지, 시들해진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의 몫을 다할지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도전 앞에 서게 해줄 것이다.

## 한철호의 선교아이디어 51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는 선교  
한철호 저 | IVP

한국인 선교 동원 전문가가 안내하는 균형 있고 실제적인 선교 첫걸음 담긴 책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한철호 선교사가 제안하는, 누구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아이디어 51 가지를 안내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 일기를 쓰는 일 등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여 작은 선교적 실천으로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나아가 실제로 배낭을 메고 떠나는 여행까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꾸는 법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 눈을 떠요, 아프리카

김동해 저 | 홍성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오를 갚기 시작하다



평범한 안과 의사였던 저자는 2001년 일어난 9·11 테러를 보며, 어떻게 저런 무자비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고민했고, 그들이 느낀 증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겠다고 결심하기 이른다. 곧바로 안과 수술이라는 달란트로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계획하고, 2002년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처음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 캠프를 열었다. 그 후 의료선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년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를 설립했다. 이 비전케어를 통해 전 세

계 38개국에서 14만 명을 진료하고, 2만 명에 가까운 백내장 환자들의 시력을 되찾아주었다.

그러던 중 처음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 2007년, 스와질란드에는 나라 전체에 안과 의사가 단 1명 뿐이고, 그것도 남아공에서 온 의료선교사였음을 알게 된 후 아프리카 안과 의료 현실의 처참함을 깨달았다. 이후 많은 사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종단하며 현지인들에게 안과 진료를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해 스와질란드,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까지 아프리카 동남부 9개국을 종단하는, 바로 이 책의 제목인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책을 통해 이 험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동행해보자.

## 놀라우신 하나님 (God is Magic)

반다혜 저 | 국민북스

『케냐에서 지낸 500일간의 선교행전, 엄마의 선교 약속, 37년 만에 딸이 이룬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도전을 받은 저자는 실제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본을 보이는 부모님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젊고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다. 1년 3개월여를 케냐 나이로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며 저자는 “자신이 아프리카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고 말하는 이 책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과 격려로 다가온다.

글/책 표지 출처 : YES24





## 엘살바도르 선교 후기

박순자 권사

10월 10일 아침 8시 뉴어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5년 만에 선교지에 갈 때, 육지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을 때, 정상 궤도에 올라 5~7분 정도 날아갈 때에 비행기 천장에서 찬양의 멜로디가 내게 들리더니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 생각과 꼭 천상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전주곡이 끝나고 다음 한국말로 찬송이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한 구절만 계속 리마인드 되면서 마이애미 공항에 갈 때까지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도착하여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엘살바도르를 향해 가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비행기는 오일의 힘을 받아 항공을 날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달아주시어 항공을 날아가는구나!” 그런 기분으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날아갔습니다.

도착하는 날 바로 “우르스탄” 지교회를 첫 번째로 방문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 사역자 분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며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번쩍 들어 흔들면서 들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내고 울려니 눈물을 삼키게 되고, 그러니 목이

메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지요. 그렇게 울고 나니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10년의 세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많은 애착을 갖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교회” 를 오전에 갔는데, 그곳은 비가 많이 오면 길이 없어지고 곳곳이 파여서 계속 진 것 같이 파여 고무 타이어를 쌓아 올려 물을 막는 곳이었습니다. 엄청 가팔라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한쪽 손은 팀장님이 붙잡아 당겨 주시는데,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올라 그곳을 통과한 후에 보니 내 발은 논산 훈련소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산타마나에 새로 지은 신학교 겸 교회에 갔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늦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묵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현지 교인들에게 우리들을 미국 뉴저지장로교회에서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설명을 하시곤, 첫 번째로 저를 가리켜 자리에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엘살바도르 선교지에 대해 간증이 많으실 겁니다. 나오셔서 간증 좀 해 주십시오.”라고요.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에 황당하고 난감해 머리가 먹먹했지만, 묵상으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하고 담담하게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 셧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준비도 못 한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처음 파송되어 가실 때의 일이 첫 번째로 떠오르더군요.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파송 예배 순서지의 기도란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장로님이나 시무 권사님을 시키시는데 저는 서리집사이었지요. 난감했지만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제 옆에 낯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여자분과 남자분 어린 남매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분들임을 몰랐습니다.



### *El Salvador*

그런데 처음부터 사모님 되시는 분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끝나고, 김창길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광고 시간에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으로 파송될 가족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님의 우시던 모습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것이 이 엘살바도르 선교지와 인연의 끈, 예수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직분도 전혀 모르는 타교인 분이 3년을 이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 드렸으면 하는 부탁을 하셨고, 제게 직접 주시기에 보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 영수증까지 받아서 드리는 일은 저에게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사탄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못 가게 쓰러뜨릴 방해를 하는 등, 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죽으면 죽으리라! 쓰러져도 선교지에 가서 쓰러질 것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적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교 헌금 전달을 선교적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 또 10년 동안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과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헌금 모두 선교지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선교였고,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예수그리스도께서 뉴저지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하시며,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 박종원 선교사(탄자니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매해 코로나보다 말라리아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탄자니아와 주변국에 복음을 전하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이동관 선교사(케냐)

"그들이 복음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자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케냐의 교회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 오정호 선교사(위클리프)

"선교사 후보를 발굴하고, 훈련해 파송하라는 본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인 교회와 EM 영어권 교회를 순회하며 세미나와 컨설팅으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미미 집사

“너의 꿈은 무엇이니?”

어릴 적부터 수없이 받아왔던 질문과,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왔던 질문의 답은,  
언제나 멋진 “디자이너” 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하고, 디자이너가 되어 꿈을 펼쳐 보려던 찰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남편 직장을 따라 타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점점 더 내가 꿈꿔왔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며, 나의 꿈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엄마, 주부, 경단녀” 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꿈을 펼쳐 보리라는 각오로 디자이너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육아와 커리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기 힘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코로나 19라는 두번째 벽에 부딪히며, 나의 소중한 아이들, 남편과의 관계, 우리 가정은 점점 어디론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영과 육으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포기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며,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꿈과 커리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의 가정과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워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꿈을 이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둘 중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은 실패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오클 영유아부에서 교사로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교사를 시작한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간이긴 하였지만, 3년차가 시작되던 시점, 교사를 왜 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일을 그만두었던 때였기에, 저의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교사도 내려놓으려 담당 목회자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와 인종, 언어를 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이며, 교사는 그 일을 하는 선교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교사이자 선교사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만난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흔들리고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그분들과 함께 견뎌 나갈 수 있었던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그 선생님들처럼 교회학교, 한글학교, 여름학교.. 기회가 되는 한 교사로 섬겨왔던 저의 청년의 날들을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이끌고 계셨고, 세워 주셨고,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갓 스무 살이 되던 해, 미주 기독교 청년 수련회인 KOSTA에서 깊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예배 인도자의 도전에 마음속 한치의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두 손을 번쩍 들었더랬습니다. 그 후로 단기선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에도 기회가 닿는 한 참여해 왔지만, 결혼 후 저의 가정과 자녀들이 생기면서는 이전과 같은 선교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위도, 추위도 많이 타고, 벌레도 무서

워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잘 지내는 사람은 아니기에,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시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잊은 적은 없었기에 제 마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담감과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로 봉사하는 사역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 그 순간부터 제가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저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 자리로 부르고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매주 영아부에서 아직 걷지도, 말도 못 하지만 생후 42개월 이전의 영유아부 아이들과 그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기어다니며 때로 말씀에 집중해 바지에 쉬야를 하는 실수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어여쁜 그 아이들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몽클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생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할 때면 제가 이 사역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210명의 아이들을 여름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독교 활동의 제약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여름학교로 돌아와 그들이 배웠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현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스태프들과 함께 오직 한 가지, “21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펠팩과 오클랜드 유초등부가 연합으로 가게 되었던 2박 3일간의 VBS에서는, GUEST SPEAKER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

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이 자녀들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신 것이 큰 축복이자 감사할 일임을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섬긴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교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자리를 경험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히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다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사로 섬기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생전 접해보지 못한 언어나 문화, 음식, 날씨를 경험하지 않고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 그런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Coming to this year's  
**VBS**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Joyce Roh (펠팍 유초등부)

At first, I wasn't very excited to come, I just wanted a good time with my friends, and I did expect a lot of sermons and praying. During the VBS, I had a nice time with my friends, and the sermons were great. But I never thought that I'd cry so much during prayer time with the teachers. Two teachers came up to me and hugged me to pray for me. I felt warmth in my heart when they prayed for me. It felt very nice. I also felt a little bit of warmth when I was praying. But I don't know, I don't know if I truly felt it or not. Hopefully I did. Honestly, I don't know why I cried so much. I didn't want to disturb others during that time. I should try to rethink what I actually felt when they were praying for me, but I don't know if I can be so sure. The rest of the VBS was a blast, and I think I had a lot of fun.

Of the three days of VBS I spent there, I liked the second day the most, because that was the day when the teachers prayed for us. The other two days were a good experience, for me, too. I didn't regret coming to this VBS.



## *God's love to shine in VBS*

Heimin Yoo(EM)

God's love was so evident in this year's elementary VBS. Being part of the worship team gave me the opportunity to see the smiles on the childrens' faces and experience how much joy there is in the house of the Lord when His people are gathered together. The amount of prayer that was poured into VBS, from the preparation and throughout, was a testimony as to how everything was and is possible because of God's love for His children. It was a blessing to serve alongside pastors and parents who had so much wisdom to share and so much of Jesus' love to shine!





## Ask Summer School Journey

Lighbert Cho (팻팻 중고등부)



So this is a little late to say since it's all over now, but I'll say what I need to say. Yesterday was a lot to process so I needed that time to say what I needed to say here. So as any testimony I suppose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I signed up for this summer school program because I knew Christ was tugging me towards it. This year has already been a journey for me as I've started going to church more and attending Friday night services, but even then I still wasn't as open as I could've been, I tried to stay with people I was more comfortable with, like the pastor for example. This was the first time I had to work in a group setting and actually have to interact with others for the betterment of children. And then soon enough, Ask



school actually starts. I remember being rather cold to the other TA and/or talking very erratically towards them. I didn't treat the students with very much respect either, in fact I yelled at them for even the slightest inconvenience. I'm sure you guys know that since most of you saw me doing these things. But over the course of a few weeks something changed. Perhaps it was divine ordinance, but I started to feel more connected to others here, the TA, the teachers, the students, the staff. And when I became sick for that one week, it only enhanced my feelings for you guys. From then on I tried to be a little softer to the people around me, I tried to lighten up a little more, and it all culminated into the last week of Askschool. This last week was the most joyous week of this year for me and I have all of you to thank for it. I thank God for dragging me out of this dark lonely bubble I had made myself and introduced me to everyone here. It's hard for me to say goodbye, especially because of how much all of you have done for me. Oh well, I'm not too sure if I can come back next year, but I'll surely return the year after. Thank you all of you for this, it has been an absolute honor for me. The teachers, the staff, and the TA's. All of you taught me so much, thank you. May the Lord Jesus Christ be upon all of you.



# FOR THE NEXT DREAMERS

김준섭 성도

저는 '드리머'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2012년 6월 DREAM ACT 법안 아래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결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신분 문제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꿈을 가지기 힘들었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의 희망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DACA는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전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신분 문제로 원하는 대학교에 등록할 수 없었고, 운전도 할 수 없어서 걷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고,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고, 학교 용자도 못 받아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그 작은 (그린) 카드 하나가 없어서, 여러 거절과 좌절 혹은 실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을 나갈 수 없었다는 점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만 되면 주변 친구들은 한국을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며 바쁜 여름을 지냈었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학비를 벌거나,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저의 여름 생활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모두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매번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DACA 신분으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학기 동안에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가면서 살았고, 여름에는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여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쯤, 주변 교회 분들의 권유로 여름학교 보조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

모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특별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살부터 지금까지 보조교사, 스태프, 교사,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며 18년 동안 매년 여름 학교를 섬겨왔습니다. 뉴저지장로교회 여름 학교는 저의 삶이었으며,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파워하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여름 학교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들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저의 허무했던 여름이, 기대되고 설레고 기쁨의 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로프랙터입니다. 카이로프랙터가 되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8살에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28살 갓 졸업하고 결혼한 남자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고 온 힘을 다해도 못할망정 카이로프랙터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4년 동안 코네티컷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며 학교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남자를 지금도 사랑해 주는 저의 아내에게도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카이로프랙터를 가게 된 계기는, 2017년 다녀왔던 텍사스 단기선교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 만났던 도움의 손길과 복음이 필요했던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저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4년의 대학 생활 8년을 한 저로서는 학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고했던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Yes”하고 가고 싶어졌습니다. 대학원 4년을 마치고 2023년 5월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갑자기 방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건가?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면 되는 건가?” 무언가 확실치 않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시 여름이 다가왔고, 저의 마지막 뉴저지장로교회 여름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6주간에 여름 학교는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게 정확히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학교에는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고 꿈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도 느꼈고, 가족 간에 소통의 어려움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저의 손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름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돌아와서 또 그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광경을 보고 저는 “그래 이거야!”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좋은 것들과 배울 점이 있는 본보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또 그 세대가 그다음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제대로 된 뿌리를 내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열매를 잘 맺도록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궁극적인 카이로 병원 목표도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이들 전문 척추 교정 병원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제자들은 배웠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통해 아이들과 그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고 좋은 본보기로 가르치면서 똑같이 그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처럼 신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 꿈이 있는 아이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길 원하고. 또 그 사랑이 내려지고 또 내려져서 귀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 FOR NEXT DREAMERS!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일대일 동반자반'을 마치며

강할리 집사

안녕하세요? 강할리입니다.

처음에 일대일양육을 시작하게 된 건 일대일을 통해서 속깊은 교제와 배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성도는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혼자 있나' 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나편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반 또 말씀으로 무장되고 싶은 생각반으로 이 수련을 시작했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였는지 양육자와 만나는 시간, 장소 등등 결정하는데 내가 생각 했던 것들과 많이 달라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쉽게 그냥 주일에 예배 끝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각자 개인 스케줄도 있고 양육자님이 봉사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주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니다. 주말은 막내가 어려 아직 손이 많이 가서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든 생각은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 어떻게 16주를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냥 다음에 하는걸로 한다고 연락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양육자님이 무조건 맞춰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얘기하셔서 '그래 한번 그럼 해보자' 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 내 카페테리아에서 한번 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장소도 쾌적하고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라 아무도 없고 바쁜 주말을 쓰지 않고도 모든 게 해결되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난 왜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 좁은 시야를 넓혀주셔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주님의 은혜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들은 건 많은데 또다시 기초적인 것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들으니 새롭고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새롭게 다루면서 오래적 보던 Mel Gibson 주연의 The Passion of the Christ 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본 제 영화평은 정말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다 였거든요, 육체의 아픔과 더 나아가 사람들 속에서 받은 모욕감은 어땠을까 .....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3장 34-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줄 알리라.**

나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실천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 가까운 남편 언제 사랑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남편부터 존경하고 사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도 물론 많지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자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구역 예배 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인지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전에 못마땅하던 것들이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 하는 어떤 이해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전 아직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구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는 저보다 더 이웃들을 살뜰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제 남편은 언제가는 반드시 주님 품으로 올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막연하게 너무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그럼 전도는 편하게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양육 받으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기록해야 했었는데 이게 참 묘미였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이해도도 깊고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한 번 쓰니 제 머릿속 에도 더 깊이 새겨 지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쓰고 하니, 같이 예배에 참여한 기분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건 정말 큰 수확인 거 같습니다.

매번 저를 찾아와 주신 양육자님의 사랑, 헌신과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뉴저지장로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레이지 러브에 오늘도 또 영원토록 찬송 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 '일대일 양육자반'을 마치며

송희선 집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양육자반에 참가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양육제자반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근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알아듣기 쉽게 가슴에 와닿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양육자반 교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내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믿음으로 한걸음 더 천국에 더욱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나의 짝꿍 박지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ZOOM에서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느꼈어요.

저는 2016에 일대일 동반자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이번 양육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후회가 따랐습니다. 세월이 7년이 흘렀지만 내 인생이나 믿음도 제자리걸음인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양육자반을 교육받으면서 깨우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양육자반 교육을 받은 것이 내 인생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모습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 1. 나의 인생향로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향로에서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선장이 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피로와 실망 속에서 살아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자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인



생 항로의 키는 예수님이 잡고 있고 나의 인생 항로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 졌습니다.

## 2.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고 친근해졌습니다.

한번은 양육자반 권미영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닌 증거입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성령으로 또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아버지만 가까운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지켜보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도 즉 무소부재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친근해졌습니다.

## 3. 양육자반을 받은 후 교제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교(오클랜드 점심 봉사)나 구역 예배봉사 혹은 전 교인 체육대회에 있을 때마다 항상 가야하나 고민 중에 결정을 하긴 했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항상 소극적인 내가 먼저 전화하여 필요한 것은 없는지 체크하는 나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자리나 채우고 설교만 듣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신 사역처럼 나도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는 말씀처럼 전도에 힘쓰는 제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을 마치며

- 심리상담 북클럽 소감문 -

이연희 집사

어느덧 마지막 열 번째 수업이다. 또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과 수업을 주관하여 주신 김병용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팬데믹 기간 중 참여하기 시작한 김병용 목사님과 함께한 수업들은 날 세우고 움츠린 고양이처럼 예민하고 자신 또한 제대로 들여다볼 줄도 모르며 타인과의 관계도 한없이 불편하고 서툰던 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 '스트레스와 감정치유' 에서부터였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로 인한 깊은 우울과 무기력, 그것들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에너지와 무표정과 무관심 등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던 나는 결국 큰 병을 앓아야만 했다. 이러한 내게 수업 중 "기억과 감정에는 오류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때부터 인 것 같다. 나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 실제로는 불행했던 순간보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되고 나니 내 스스로 불행을 확대해 행복을 덮고 묻어버렸구나 싶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나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비뚤어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니 나의 모습과 모순된 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하나의 인정이 고침의 시작이었다. 나의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고난이라 여겼던 많은 일들도 고난이 아닌 불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나에게 찾아온 평화는 나 스스로와 화해하게 하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등등 조금씩 화

해의 범위를 넓혀 가는 중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평화가 평안으로 충만함으로 행복감으로 다가왔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자주 넘어지고 분노하고 또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틀 안에 다시 말해 내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나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조금씩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져가는 나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나를 위한 꿈을.....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하나님의 때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고 수업에 열심 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 이제 저는 넘어져 깨지고 멸시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이런 감사할 일들이 내게서 무너지게 마시고 교만으로 변질되어 저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스스로 가리지 않기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제 새로 꾸는 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석미옥 권사

(잠언 29: 18)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5년 전, 텍사스 딸 집에서 외손자를 맡아 1년을 키웠고 돌잔치를 끝으로 뉴저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몇몇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팬데믹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비유법으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칭찬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겪었던 한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 좋아요!’ 하던 아이가 머리가 컸다고 사춘기 접어들어서는 ‘엄마는 왜?!! 아빠는 왜!!!’ 하며 반문을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어른이 되어 세상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을 때가 되면 다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며 겸손한 맘과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를 대면합니다. 혼자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한걸음 한걸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 여전히 예수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 살리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의료선교



노회 선교지 탐방



엘살바도르 임마누엘회 장학 선교



여름 단기 선교 지원을 위한 바자회



팜팍 히스패닉 VBS



퍼스펙티브 카이로스 훈련



과텔말라



텍사스 포트워스 난민촌



교역자 수련회



교육부 부장단 회의



오안순 장로님 백세연



전교인 연합 예배



회복의 삶



자녀 교육 세미나



커피 브레이크



세례식



청년부 겨울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야외 활동



팸팍 유초등부 주일 예배



팸팍 유초등부 졸업식



오콜 유초등부 달란트 시장



유초등부 연합 VBS 캠프





팠팍 유아유치부 어린이 주일



팠팍 유아유치부 종려 주일



오클 유치부 부활절



오클 영유아부 말씀 암송 데이



오클 영유아부 VBS



유아유치부 연합 VBS



팠팍 ASK 한국학교



오클 ASK 한국학교



## 그 사이를 잇는 42호, 예담원을 떠나며

42호 예담원지 편집자로서, 지난 예담원지들을 1호부터 찬찬히 살펴 보았습니다. 손글씨에서부터 디지털 편집으로 발행되기까지, 편집 기술의 변화는 세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예담원에는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담원에 실린 성도들의 글들과 사진들,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글은 어느 한 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 주제로 꾸려진 42호 예담원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선교적 사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인 글들을 보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글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문서선교부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시는 노근래 목사님, 내실 있는 글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수고하신 김유미 집사님, 마음을 담은 글을 보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 행사 사진을 보내주신 각 부서 교역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42년 뒤인 84회 편집자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죠?’라는 인사를 미리 건넵니다.

예담원 42호 편집자 김재영 집사 드림



# 2023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마가복음 16:15)



## 주일 예배

펠팍	장년부 예배	1부	7:00am
		2부	8:30am
		3부	10:00am
		4부(젊은예배)	12:30pm
	Hispanic Ministry 예배		5:00pm
오를	장년부 예배	3부(영상설교)	10:00am
		4부(찬양예배)	11:30am
	English Ministry 예배	11:00am	

##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김창길 목사	원로	201-618-1532	pampastorkim@gmail.com
김도완 목사	담임	201-337-1313	kdw1970@gmail.com
노근래 목사	3-7교구/수석	201-953-2376	notop77@gmail.com
노재균 목사	1-2교구/청년부	978-473-4168	shworbs@gmail.com
조희창 목사	교육부총괄,오를 유초등부	646-300-4790	re1907@gmail.com
이승희 전도사	오를 영/유아부	314-397-8913	oaklandtoddler@gmail.com
Maria Kim 전도사	오를 중고등부	917-406-5396	ypastorkimpcnj@gmail.com
김진희b 전도사	펠팍 유아유치부	201-899-8987	hahahajini@gmail.com
박현욱 목사	펠팍 유초등부	551-255-2705	oj0143@gmail.com
Joseph Yoon 목사	펠팍 중고등부	732-261-4131	joekyoon@gmail.com
David Chang 전도사	EM, Youth Director	845-596-0003	davidchang2@gmail.com
Christyne Han 전도사	EM Worship Leader	917-385-7430	hanchristyne@gmail.com
Francisco Gonzalez	Hispanic Ministry	301-613-8061	fgonzalez8061@gmail.com
Luis A. Aguas	Hispanic Ministry	201-921-2351	betto039@gmail.com
박기현 간사	행정	551-255-0969	kpcnjc@gmail.com

## 주일 교회학교 예배

펠팍	유아/유치부(30개월-6세)	2교육관 1층	10:00am
	유초등부 (1-5학년)	1교육관 1층	
	중고등부 (6-12학년)	1교육관 2층	
오를	영아부 (0-18개월)	신관 영유아부실	11:30am
	유아부 (18개월-3.5세)		
	유치부 (3.5-6세)	신관 유치부실	
	유초등부 (1-5학년)	신관 유초등부실	
	중등부 (6-8학년)	구관 중등부실	
	고등부 (9-12학년)		

## 협력 사업자

김병용 목사	상담	201-546-2018	cbtmood@gmail.com
최윤희 목사	상담	201-658-3611	yoonhaechoi2@gmail.com
이애자 전도사	8-12교구/심방	201-233-8427	papaya2944@gmail.com
김경용 전도사	찬양	646-369-7883	sogm92@hotmail.com
최성애 전도사	개척교회 파송	718-541-8985	nabi222@yahoo.com

## 중고등부 금요일모임(F.N.R.)

중고등부	펠팍 1교육관	7:30pm
------	---------	--------

## 주중 기도회

펠팍	새벽기도회 (월-토/온라인 동시 진행)	6:00am
	수요저녁기도회 (온라인 동시 진행)	7:30pm
	금요기도회	임시 중단
	중보기도	

## 부속 사역

버겐경로대학 (펠팍, 토)	9/9 개강
초등이 배움터 (펠팍, 월-금)	9/7 개강
펠팍 한국학교 (펠팍, 토)	9/9 개강
오를 한국학교 (오를, 주일)	9/10 개강
여름학교 (Leonia High School)	7/5-8/11

## 파송/협력 선교단체 및 선교사

Misael Garcia 선교사(가테말라파송선교사)	misaelgarcia0975@gmail.com
박기창 선교사(엘살바도르)	y2mpkc@hotmail.com
김성은 선교사(아이티)	macjean68@gmail.com
안진찬 선교사(가테말라 은혜교회)	chanmi1004@gmail.com
조동천 선교사(카보디아)	chosamo2008@gmail.com
Rosalio Patzan 선교사(가테말라)	patzanrosalio1963@gmail.com
장홍화 선교사(아시아)	
이동관 선교사(케냐)	kensarang@gmail.com
박중원 선교사(탄자니아)	jpwpstory23@gmail.com
오정호 선교사(위클리프)	John_Oh@diu.edu
뉴저지말알선교회(장애인 사역)	https://www.njmial.org
선한이웃선교회	https://www.goodneighborbomj.org

## 교회 밴 운영 일정 (문의: 서정민 집사 201-835-5710)

- **교회밴 1번(운전자: 김준선 형제, 551-574-5238)**  
포트리 475 시니어 아파트(475 Main St, 9:00am) - 교회 -  
포트리 505 시니어 아파트(505 North Ave, 9:30am) -  
레오니아 시니어 아파트(270 Glenwood Ave, 9:40am) - 교회
- **교회밴 2번(운전자: 정만성 집사, 201-281-2546)**  
클럽사이드 팍 시니어 아파트(500 Gorge Rd, 9:00am) -  
펠팍 Columbia Ave.(9:15am) - 교회 -  
펠팍 시니어 아파트(300 Highland Ave, 9:40am) - 교회
- **오렌지 콜택시 미니밴**  
이스트 러더포드 시니어 아파트(147 Hackensack St, 9:30am) - 교회

### 김도완 목사 주일설교



### 새벽기도회



### 수요기도회



## 교회 주소 및 연락처 E-mail: kpcnj.home@gmail.com / 카톡ID: PCNJ

펠리세이조팍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4-5756  
 오를랜드 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Tel) 201-337-1313 (Fax) 201-322-0088  
 웹사이트 <https://kpcnj.org> 유튜브북 @kpcnj 페이스북북 @presbyterian.church.nj



[www.kpcnj.org](http://www.kpcnj.org)

